

한국전통문양을 응용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연구 - 옵티컬 패턴(Optical Pattern)을 중심으로 -

변영희[†] · 채금석

대구의대대학교 패션뷰티과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extile Pattern Designs with Applied Korean Traditional Patterns - Focused on Optical Patterns -

Young-Hee Byun[†] · Keum-Seok Chae

Dept. of Fashion & Beauty, Daegu Hanny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1. 22. 접수/2007. 2. 23. 채택)

Abstract

Patterns have their own shapes and characteristics as a symbol in accordance with in what environment they are like a language. Especially our ancestor had wished present values as like riches and honors, longevity and health, love and happiness through all kinds of patterns of animals, plants, the sun, the moon, cloud, water and mountain, and expressed an aesthetic consciousness. Pattern design is important in fashion but i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modern pattern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patterns. Therefore, We need to create new senses and thoughts through the understanding and re-analysis about Korean traditional costume and a study on optical patterns could give an extreme effect without any changes of silhouette. Especially, Emilio Pucci and Missoni have been developing a variety of Pattern designs even though there are different tendencies each other. Consequently it could be a good chance to show Korean images and originality that develop the various textile patterns with applying to Korean traditional patterns based on an anaysis of their works.

Key words: Textile design(텍스타일디자인), Korean traditional pattern(한국 전통문양), Optical pattern(옵티컬 패턴)

I. 서 론

섬유 또는 직물을 뜻하는 텍스타일(Textile)은 일반적으로 섬유디자인, 직물디자인, 서피스(Surface) 디자인,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텍스타일 프린팅 디자인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¹⁾, 모티브(motif)가 반복·배열됨으로써 텍스타일의 기본이 되는 패턴(pattern)을 이루게 된다. 즉, 텍스타일 디자인이란 직

물에 여러 무늬와 색상을 부여하여 미적 요소를 창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패턴 속에 선, 공간, 형태, 색채라는 디자인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보는 사람들에게 착시 효과를 일으켜 착용자의 신체적 결함을 감추거나 매력적인 부분을 돋보이도록 한다²⁾.

본문에서는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을 위한 모티브로써 한국의 전통문양을 응용해보고자 한다. 이는 2005~2006년도 전통문양을 응용한 의상 및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가 ‘보상화문을 응용한 의상

[†]Corresponding author: Young-Hee Byun

E-mail: yohee2@hanmail.net

디자인연구³⁾, ‘디지털 프린팅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연구⁴⁾’ 등 단 몇 편에 그친 점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 즉,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등 동양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세계 패션 시장에 한국의 다양한 문양 개발을 통한 독창적인 미의식을 선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문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패션 무대에서 보여지는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현대 패션에 적용할 수 있는 전통문양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텍스타일 패턴의 다양한 형태 중 옵티컬(Optical) 패턴은 단순한 반복적 구성을 통해 시각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에 따른 최대의 미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문에서는 옵티컬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며, 이 중에서도 옵티컬 패턴의 응용에 용이한 식물문, 자연문, 기하학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범위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컬렉션 무대에서 선보인 Emilio Pucci 와 Missoni의 800여 작품 중 400여점을 선정하여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 양상과 비교·고찰함으로써 한국적인 패턴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한국전통문양의 의의

인간은 자연의 대상 뿐 아니라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왔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미의식을 형상화하고, 인간의 내적 염원을 표현해왔다. 한국 전통문양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민족의 역사 속에 전해져오는 무늬의 양식과 총체를 의미하는데 한국 전통문양의 시대별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은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의 최전성기를 맞아 더욱 원숙하고 세련된 복잡한 무늬가 많이 표현되고,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바탕 위에 유교 사상을 지향한 격조 있는 문화와 선종의 영향으로 자연주의적 특성이 함께 엿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배불숭유정책으로 인한 유교의 영향으로 품격 높은 장식무늬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이는 문양이 그 민족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니며, 약속된 부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문양을 통해 우리 민족은 부귀(富貴), 다남(多男), 강령(綱領), 성애(性愛)와 같은 현세적 가치를 염원하였는데, 한국 전통문양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에 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특히 태극문(太極紋)은 천지의 모든 현상이 음양의 배합으로 이루어지고 변화, 생성되어 발전과 번영을 영원히 계속한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한국전통문양의 조형적 특성

1) 형태

전통문양은 활용되는 대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문되는데, 분류 기준 또한 각기 다르다. 주로 사실적(묘사적) 형태, 양식화된 형태, 추상화된(기

<표 1> 한국전통문양의 시대별 종류 및 특징⁵⁾

시대		문양	특징
선사시대	신석기	빗살문, 기하학문(어골문, 즐문)	단순한 형태
	청동기	태양문, 빗살문, 기하학문	표현대상 확대, 정교한 형태
삼국시대	고구려	장신구: 초화문, 인동문, 당초문, 용문, 봉황문 무기류: 용문, 구문, 봉황문	강건미
	백제	용기류: 격자문, 연화문, 산경문, 당초문, 조문 와당: 연화문, 인동문, 귀면문	은화함, 윤택미
	신라		외래문화 수용, 이지적 면모
통일신라시대		당초문, 비운문, 인동당초문, 봉황문, 귀갑문	원숙, 세련된 조형미
고려시대		국화문, 모란문, 여의두문, 연관문, 보상화문, 연화당초문, 운문, 번개문, 월문, 우문, 해문	호화스런 경향(불교) 자연주의 경향(선종)
조선시대		봉황문, 용문, 기린문, 모란문, 사군자, 포도문 석류문, 호,우,마,어문, 아자문, 십자문, 십장생문	종류의 다양성 품격 높은 회화적 장식(유교)

<표 2> 한국전통문양의 의미와 상징성⁶⁻⁸⁾

구분	종류	의미 및 상징성
식물문	①사군자(四君子)	매(梅), 난(蘭), 국(菊), 죽(竹)으로 군자의 품격(지조)과 절개의 상징
	②삼다(三多)	수(壽), 복(福), 다남(多男)을 기원하는 길상문
	③석류(石榴)	자손의 번성과 다남 및 자손수호(子孫守護), 다복
	④모란(牡丹)	부귀, 화목 및 성실, 백화의 왕 (장명부귀, 신선부귀)
	⑤포도(葡萄)	다남(多男), 다복(多福), 다부(多夫)의 기원
	⑥국화(菊花)	귀족적 취향, 고결(高潔), 고상(高尚), 품위, 절조, 장수를 상징
	⑦매화(梅花)	사군자 중 하나로 미덕, 행복, 장수, 정절, 고결의 상징
	⑧연화(蓮花)	광명, 생명, 창조, 번영, 박애, 사랑, 건강, 불사(不死), 불화(佛花)성불(成佛)
	⑨당초(唐草)	연면(延綿)의 상징, 길상의 의미
자연문	①해(日)	세상을 밝게 비춤
	②산(山)	불변(不變)을 상징
	③구름(雲)	우주의 자연 현상을 형상화, 위엄(威嚴), 신비성, 속세를 벗어난 풍류를 의미
	④물결(波)	깨끗함을 의미, 물의 움직이는 곡선을 형상화
	⑤소나무(松)	굳은 절개 및 유교적 절의와 지조, 풍류, 장수를 상징
	⑥대나무(竹)	높은 기상
	⑦학(鶴)	고귀함, 높은 기상
	⑧사슴(鹿)	선(善)과 평화
	⑨거북(龜)	수호와 복(福), 장수(長壽), 사령(四靈)의 의미
	⑩불로초(不老草)	不老長生 기원
기하학문	①반(卍)	길상의 의미, 태양 숭배와 생명의 시작, 영속성에 관한 우주관 내포
	②아(亞)	비(雨)를 기원하는 의미와 뇌문(雷紋)을 단순화시킨 것
	③번개(雷)	비를 기원하는 농경문화와 관련
	④물결(波)	길상의 의미, 물결 모양의 울동을 형상화
	⑤회(回)	시작도 끝도 없음을 상징, 비를 기원하는 농경문화와 관련
	⑥태극(太極)	세상 만물의 원상태, 천지만물은 모두 음양이원론으로 성립

하학적) 형태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⁹⁾, 옵티컬 패턴에 응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요구된다. 첫째, 식물문은 유동적인 곡선의 연속 구성과 형태의 반복으로 울동감과 동적인 감각을 주고, 둘째, 자연문은 곡선의 연속 구성과 반복에 따라 리듬감과 울동감을 부여한다. 셋째, 기하학문은 직선의 연속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속적인 구성을 위해서는 형태 그대로를 반복해서 기하학적인 울동감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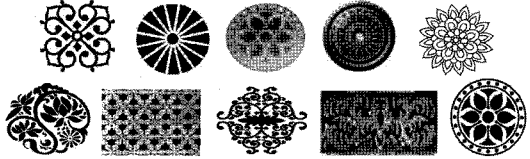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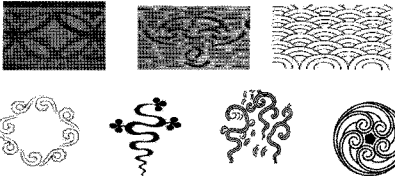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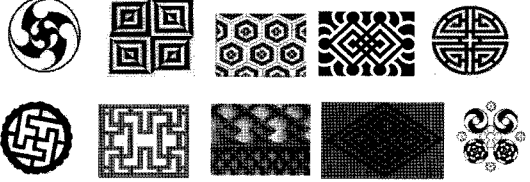
2) 색상

색상은 문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 전통 색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 2가지의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는데, 지극히 수수하고 정적이

기든 듯한 간색(間色)조와 이와 상반되는 원색의 현란한 조화가 있음을 볼 때 ‘단색조’와 ‘다색 위주’의 대립된 표현 방식이 함께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색동옷과 조각보에 사용된 靑, 赤, 黃, 白, 錄은 복식과 음양오행의 관계 및 오색 무지개의 꿈, 오복, 오덕, 오행 등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의복에 나타난 오행사상은 방향과 색의 음양 조화로 각 행성을 상징하는 색을 사용함으로써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옵티컬 패턴의 개발에 있어 위의 두 가지 색채 경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한국적인 이미지의 다양한 텍스타일 패턴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구성 및 배치

<표 3> 한국전통문양의 조형적 특성^{10,11)}

요소	종류	특징	비고
형태 (形態)	식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선의 연속 구성에 의한 울동감 • 반복 배치를 통한 착시효과 	
	자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선의 연속 구성에 의한 리듬감/울동감 	
	기하학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속적인 직선 배치의 기하학적 형상 	
색(色)	간색	정적, 수수함	단색, 다색조의 극단적 대립
	원색	현란한 조화	
구성 (構成)	표현 기법	회화적 구성	자유 배치
		장식적 구성	대칭 또는 양식화된 배치
	배치 기법	대칭배치	사방 대칭적 배치 및 이방 대칭적 배치
		연속배치	이방 연속적 배치 및 사방 연속적 배치

구성에 있어서는 회화적·장식적 구성을 바탕으로 이방·사방 대칭이나 연속 배치가 주로 보여지는데, 전통 문양에 나타난 특성을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III. 패션에 표현된 옵티컬 패턴 디자인

옵티컬(Optical)은 시지각적 착시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망막적인 예술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시각 현상을 색과 형태의 구성으로 화면에 표현하는 회화를 ‘옵아트(Op Art)’라고 하는데, 이는 비형식적(Informal)예술이 지배적이었던 1950~60년대에 바사렐리(Vasaraly)를 비롯한 쇠라(Seurat)와 시냐크(Paul Signac) 등 몇몇 화가들이 여러 색점을 혼합해 지각 신경을 자극하는 예술을 추구 하였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옵아트 작가들은 감상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색채 대비나 기하학적 패턴을 사용한 지각 시스템의 자극을 통해 일종의 환상을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¹³⁾, 다양한 방식의 디자인을 위해 원, 사각형, 체크, 나선, 물결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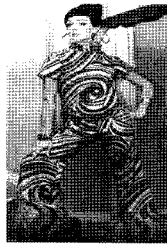
은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를 차용하는데¹⁴⁾, 그들의 작품은 자연이 지닌 형태와는 다른 단순·명쾌한 감각으로 시각적인 착시(illusion)에 국한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옵티컬 패턴의 구성은 주로 대칭적이며, 선과 형을 교묘하게 배치시킴으로써 공간에서 확대, 파동 또는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과 면의 연결을 통해 공간감과 동적 감각을 만들어낸다¹⁵⁾.

따라서, 옵티컬 패턴이란 이러한 디자인 요소를 응용하여 시지각적 착시 현상 및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문양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디자인은 형태, 색채, 재질 등의 요소에 의해 조직되고 결합되는데 본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Emilio Pucci와 Missoni 패턴을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옵아트가 발생할 당시 초기 작품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림 1~3>은 1960~70년대 작품으로 흑백의 명도 대비를 활용한 회화적 구성에 의해 기하학적, 울동적으로 표현된 패턴이며, <그림 4~6>은 색채 혼합과 유기적인 곡선을 통해 착시를 유도



<그림 1> Roberto Caysucci, 1965-6



<그림 2> Marc Bohan,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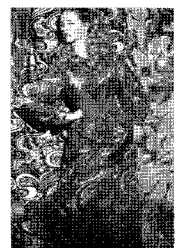
<그림 3> Roberta Di Camerino, 1976



<그림 4> Dupont AD, 1961



<그림 5> Pucci, 1965



<그림 6> Liberty, 1968

하는 사이키델릭 아트의 특성을 지닌 작품들로 회화적 구성 및 연속 배치의 기법을 통해 동적인 울동감을 전달한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다양한 패턴을 선보인 Emilio Pucci와 Missoni 작품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양상이 함께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는 왜곡된 착시와 시각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양상 모두 옵티컬 패턴에 포함시켜 살펴볼 수 있다.

1. 옵티컬 패턴의 조형 요소별 특징

1) 형태(Shape)

직선은 인체의 곡선들과 상반되는 각진 듯한 성격을 곡선은 인체의 선을 풍성하게 보이게 한다<그림 7>. 선은 길이와 방향뿐 아니라 굵기, 두께, 위치, 간격, 다른 요소와의 대비 정도에 따라서 별개의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며, 이에 따른 착시현상은 공간의 차이에 따라 운동감과 입체감을 느끼게 한다¹⁶⁾<그림 8-9>. 특히 두 개의 선이 서로 겹치면서 시각적으로 확대되어 보이는 모아레(Moire) 현상은 독특한 표현양식이라 할 수 있으며<그림 10>, 옵티컬 패턴에서 사용된 기하학적인 면은 색이나 명도의 차이가 주어지면 공간감이나 입체감이 강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림 11>.

2) 색상(Color)

일반적으로 옵티컬 패턴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흑백의 명도 대비에 의해 표현되지만<그림 12> ‘색채 변화’와 ‘색채 혼합’등의 색채 착시를 조형적 요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색채 변화란 다른 색과 연관되어 사용된 색이 단독으로 있을 때와는 매우 다르게 보이는 것이고<그림 13-15>, 색채 혼합이란 주로 시각적 혼색<그림 16> 또는 가법 혼색(additive mischung)¹⁷⁾을 말한다.

3) 소재 & 질감(Texture)

질감은 직물 표면의 성질 즉, 시각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같은 문양이라도 어떠한 질감위에 표현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반들거리고 미끄러운 표면은 많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팽창되어 보이며<그림 17>, 모피는 부드럽고 폭신한 촉감의 공간감으로 인해 부피감이 있게 느껴진다<그림 18>. 비치는 옷감은 몸의 윤곽선을 잘 나타내 주어 곡선의 효과를 배가시키며<그림 19-20>, 모직물은 두께에 따라 체형을 달리 보이게 한다<그림 21-22>.

2. 국내 · 외 디자이너별 특성

1) 국외 디자이너



<그림 7> 점의 응용



<그림 8> 선의 응용(1)



<그림 9> 선의 응용(2)



<그림 10> 선의 응용(3)



<그림 11> 면의 응용



<그림 12> 명도대비



<그림 13> 색상대비



<그림 14> 채도대비



<그림 15> 보색조화



<그림 16> 유사색조화



<그림 17> 합성섬유
(Synthetic fiber)



<그림 18> 모피
(Fur)



<그림 19> 실크
(Silk)



<그림 20> 레이스
(Lace)



<그림 21> 니트
(Knit)



<그림 22> 모
(Wool)

(1) Emilio Pucci

이탈리아 출신의 Emilio Pucci는 강렬한 색채와 기하학적 문양을 특징으로 하는데, 자국의 풍경 및 이국적인 꽃 등의 동양적인 모티브와 여러 나라의 자연·건축 양식을 주제로 한 패턴 디자인을 선보여 왔다. 그의 작품은 강렬한 ‘천연색’에 따른 짙고 활기찬 이미지와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키는 ‘파스텔 색조’가 동시에 조화를 이룬다. 패턴을 살펴보면 좌우면이 다른 ‘비대칭적 프린트’가 특징으로 추상적, 기하학적인 옵티컬 패턴이 많고, 1999년까지의 작품을 보면 유기적인 곡선의 강한 색채대비를 볼 수 있다<그림 23>. 이러한 곡선의 둥근 형태는 폭을 넓어 보이게 하기 때문에 색상과 형태를 조절함으로써 마른 체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21세기를 전후로 Pucci의 패턴은 약간의 변화를 보

이는데 2000년 컬렉션에서는 여러 형태 중 직선이 강조된 복합적 표현이 주를 이루었고, 2001년 컬렉션에서는 화려한 식물을 연상시키는 곡선과 면분할된 패턴의 표현들로 유사색 조화가 많았다<그림 24>. 이러한 양상은 2002년 컬렉션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2002년도 무대에서는 식물 이미지의 유기적인 곡선을 추상적인 형태<그림 25>와 원색 및 대비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 2003년대에는 기하학적 패턴의 형태가 좀 더 복잡해지며, 색상 대비가 두드러진다. 한마디로 Pucci의 패턴은 면 전체를 다양한 선과 형태들로 다채롭게 구성하며, 강렬한 색채 대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비대칭적 프린트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그림 26~28>. 이러한 패턴은 적용된 부위의 신체를 강조함으로써 큰 패턴의 경우 체형을 더 커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



<그림 23> Pucci,
1999 F/W



<그림 24> Pucci,
2001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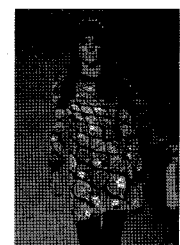
<그림 25> Pucci,
2002 S/S



<그림 26> Pucci,
2004 F/W



<그림 27> Pucci,
2005 S/S



<그림 28> Pucci,
2006 F/W

루엣에 대한 흥미를 분산시켜 체형의 결점을 가리는데 효과적이다¹⁸⁾.

(2) Missoni

Missoni의 패턴은 직선, 사선에 의한 Zigzag, Stripe, Geometries, Tartan check 등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이며, 대칭적인 문양이 주를 이루어오다가 2000년 컬렉션 이후부터는 유기적인 곡선을 본격적으로 가미하고, 색의 적용에 있어서도 과거 저채도 위주에서 원색 계열의 다채로움이 엿보인다. 이러한 Missoni의 패턴은 세로나 가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신체가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를 줄 뿐 아니라, 명도와 채도가 낮은 패턴은 체형을 감추는데 효과적인 반면<그림 29>, 강한 색채 대비로 인해 체형이 커 보이는 경향도 있다¹⁹⁾.

그동안 Missoni의 패턴은 ‘직선적 요소와 대칭적 구성’이 지배적이었으나,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점, 선, 면의 혼용과 절충이라는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이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0~32>. 또한 컬러와 소재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로 예술작품의 경지에 이른 다양한 패턴을 선보이고 있는데, 비대칭적인 문양과 다채로운 색채의 패턴이 많이 보여지며, 특히 색 사용에 있어 유사색 계열뿐 아니라 서로 대비되는 색상들을 다양하게 혼합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그림 33~34>.

(3) 기타

옵티컬 패턴은 Pucci와 Missoni 이외의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데, 옵아트에서 느껴지는 운동감에 색채변화를 주어 인체가 왜곡된 듯한 착시를 시도한다²⁰⁾<그림 35, 39>. 또한 과거 작품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흑백의 단순한 반복<그림 36~38>과 동일·유사색 조화, 좌우대칭 및 이방연속 배치 등의 단순 구성이 아닌 곡선, 사선, 파상선 등 다양한 선들의 복합적 배치와 유사, 대비, 삼색 조화 등 기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띄는데 패턴에 있어 모티브의 크기는 특정 부위의 진출과 후퇴를 표현함으로써 체형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그림 35, 36>.

2) 국내 디자이너

국내에서의 한국적 이미지의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개발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 전통문양을 활용한 현대적인 패턴 개발 및 적용은 설운형을 비롯한 진태옥, 박항치, 지춘희, 오은환 등 몇몇 디자이너에 의해 시도되어 왔으나, 표현 방식에 있어 자수, 염색, 퀴팅, 패치워크 등에 국한되어 있다²¹⁾. 이에 우리만의 독창적인 표현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계인들의 공통된 미적 감각에 호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과 문화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40~45>는 국내



<그림 29> Missoni, 1997 F/W



<그림 30> Missoni, 2000 S/S



<그림 31> Missoni, 2002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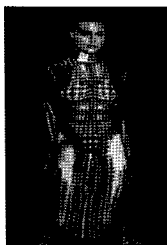
<그림 32> Missoni, 2003 F/W



<그림 33> Missoni, 2004 F/W



<그림 34> Missoni, 2006 S/S



<그림 35> Jean Paul Gautier, 1995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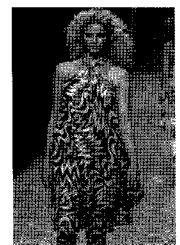
<그림 36> Gian Franco Ferre, 1999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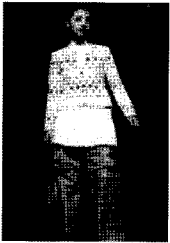
<그림 37> Giorgio Armani, 2003 F/W



<그림 38> Alexandre McQueen, 2003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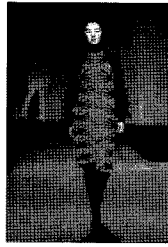
<그림 39> Eley Kishimoto, 2005 S/S



<그림 40> 홍승원, 2002 S/S



<그림 41> 박재원, 2002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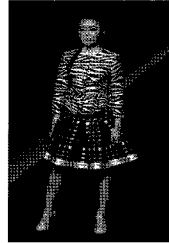
<그림 42> Ha&Dahl, 2005 S/S



<그림 43> 조성경, 2006 F/W



<그림 44> 한혜자, 2006 F/W



<그림 45> 안윤정, 2006 F/W

디자이너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유틸컬 패턴들로 전통 문양을 응용한 디자인은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문양과 패턴의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패턴은 모티브의 형태 및 크기, 색상, 배치 방법에 따라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축소되어 보이게 하지만, 제시된 국내 디자이너의 작품은 반복된 물방울 문양, 중복된 곡선 문양, 흑백의 추상 및 격자 문양, 사방배치된 원형 문양, 사선 배치된 격자문양, 세로 배치된 추상문양 등 상하, 좌우로 시선을 유도 하기는 하나 착시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를 포함해 한국전통문양을 응용한 다양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IV. 전통문양을 응용한 유틸컬 패턴 디자인 제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독창적인 이미지의 텍스타일 디자인 부족은 관련 섬유 산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요구할 뿐 아니라, 최근들어 불황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섬유 산업을 일으키는데 있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체적인 실루엣의 큰 변화 없이도 다양한 시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텍스타일 패턴 개발을 위해서는 문양의 ‘단순화 및 추상화’ 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미 살펴본 식물문, 자연문, 기하학문 등의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텍스타일 패턴을 디자인해 보았다<표 4>.

<표 4>의 디자인은 추상적이고, 단순하며, 비 묘사적인 유틸컬 패턴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화 및 반복기법’을 활용하였으며, Adobe Illustrator CS 프로그램에 의해 제작되었다. 먼저 각 각의 패턴 제작에 따른 특징과 시각효과를 살펴보면

1. 국화문, 당초문 등의 식물문은 유사색 계열을 적

용, 문양의 단순화 및 크기 변화와 회화적·장식적 구성에 따른 연속 배치 등으로 울동감과 동적 감감을 부여한다. 식물문 패턴은 배열 방향이나 간격, 문양 크기의 변화 및 색채대비에 따른 시선 유도로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 및 강조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2. 물결문, 구름문, 해문 등의 자연문은 동일색 또는 보색 계열을 적용, 문양의 추상화 및 회화적 구성과 이방 연속 배치 등을 통해 곡선의 리듬감과 착시를 유도한다. 자연문 패턴은 식물문과 같이 다양한 배열 기법, 문양 형태의 변화 및 반복에 의해 실제보다 커 보이거나 넓어 보이게 하는 등 흥미를 다른 부위로 분산시킬 수 있다.

3. 태극문이나 아문 등의 기하학문은 주로 모티브의 단순화 또는 양식화 및 회화적·장식적 구성을 통해 움직임과 착시의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마지막 디자인은 색채에 있어서 적·청·녹·황의 전통색 배치에 따른 현란한 원색 배합을 적용해 보았다. 특히 직선의 딱딱하고 날카로운 모티브는 신체와 대조되어 더욱 강조되어 보이므로 특정 부위로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적용할 수 있다.

V. 결 론

현대 패션에서의 텍스타일은 그 자체로서 장식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시도되어 온 실루엣 창조의 한계와는 달리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지닌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틸컬 패턴은 착시 효과를 극대화하여 체형의 장·단점을 보완해 줄 뿐 아니라, 모티브의 형태, 색상, 간격, 배치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패션 뿐 아니라 소품 및 문화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텍스타일 디자인 중 유틸컬 패턴 개발을 위한 전통문양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전통문양을 응용한 옵티컬 패턴 디자인 제작

	식물문	자연문	기하학문
작 품 제 작			
	국화문(1)	구름문	태극문
	국화문(2)	물결문(1)	아(亞)문
당초문	물결문(2)	회(回)문	
화(花)문	해문	색상 활용	

첫째, 식물문은 곡선의 유기적인 특징을 최대한 활용되 선의 굵기와 두께, 위치, 간격의 조정 및 동일·유사색의 변화, 이방·사방 연속 배치를 통해 움직임과 착시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자연문은 곡선의 울동감과 직선의 기하학적인 특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형태의 크기와 배치 각도, 명암의 변화 및 이방 연속·대칭 배치를 통

해 리듬감과 울동감을 강조할 수 있다.

셋째, 기하학문은 시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직선의 연속 구성과 양식화된 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형태 및 색상의 변화와 굴절, 회전 등의 다양한 회화적 구성을 응용한 자유배치를 통해 동적 감각과 시각적 현회를 유도할 수 있다.

제작된 디자인 모두 ‘단순(추상)화 및 반복’을 적용

하되 기존의 양식화된 구성보다는 회화적 구성(자유 배치)에 초점을 두었으며, 디자인 요소나 모티브의 색상 변화 및 배열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각 효과를 발휘하게 되므로 무궁무진한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문양을 적용하는데 있어 ‘간색과 원색’의 양면적 특성을 적절하게 배합·절충한다면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하며, 조형 요소 중 시각적으로 가장 빨리 인지되는 색상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염색 기법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현재 아시아 주변국가에 의해 잠식된 우리나라 섬유 시장을 일으키고, 세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 패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현대적인 감각과 우리만의 독창성이 갖는 디자인과 텍스타일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민혜강(2001). 20C 미술양식이 활용된 패션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2) Hehem L. Bevlín (1994).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New York: John Wiley & Son, p.304.
- 3) 최재영(2006). 보상화문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우혜선(2005). 디지털 프린팅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한국의 창살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천애경(2002). 한국전통문양에 나타난 조형성과 상징성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11.
- 6) 유희경(1975).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233-241.
- 7) 이경자(1983). 한국복식사론. 서울: 일지사, pp.284-292.
- 8) 남수미(2002). 한국전통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2-53.
- 9) 장수경(1994). 한국전통문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 복식, 2(2), pp.286-287.
- 10) 이종민(2005). 기하학적 전통문양의 현대적 활용방안.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0-71.
- 11) www. imagedir.com. 2006. 11. 5.
- 12) 김수봉(2001). 옵아트를 이용한 신문 광고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 13) 박현화(2001). 옵티컬 패턴의 시각적 특성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
- 14) 김규만(2003). 옵티컬 패턴의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15) Marjorie E. Bevlín(1986). 디자인의 발견. 서울: 월간종합 디자인 출판부, p.71.
- 16) 임혜원(2006). 옵티컬 아트의 원리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선의 착시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8-30.
- 17) 가법 혼색(additive mischung): 눈의 망막에 빠른 속도로 두 종류 이상의 색 자극을 계속해서 줄 때 다른 색의 감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
- 18) 김은하(1992). 옵티컬 패턴의 착시 효과를 이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 19) 김은하(1992). ‘앞의 글’. p.23.
- 20) 채금석(2002). 현대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p.200.
- 21) 김주희, 금기숙(2001). SFAA컬렉션에 활용된 서페이스 디자인연구. 복식, 52(1), pp.132-142.